

교차로

2차대전 희생자 천도제 참석
각성스님(약사포교원 주지)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사 이관 관공사에서 열린 2 차대전 강제징용, 징병, 징산대 희생자 위령대제 및 천도제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조계종 전국포교 사단이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천도제와 전적지순례를 함께 했다.

천불전 불사준비
경암스님(세계불교 신문사 사장·위원장)은 불사 준비위원회로 지난 15일 귀국했다.
경암스님은 28일 출국할 예정이다.

'세종문화상' 수상
민병천총장(총독대)이 '94세종 문화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방, 안보분야에 발전을 기하고 관계분야 진흥에 공적이 있는 국민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공적을 치하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방송경영인 세미나 참석
김태호시정(불교방송)은 한국방송협회 주관으로 열린 '94년도 방송경영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재

도의 향후 비관적인 발전방향과 미래방송 기술환경의 변화 그에따른 대처방안'을 주제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파라다이스에서 열렸다.

청소년 1급 지도자 연수
선진규법사(봉화산 청소년 수련원장)는 문화체육부가 주최하고 청소년 개발안이 주관하는 1급 청소년 지도자 자격 취득 연수를 받고 있다. 이 연수는 보라매공인내 청소년회관에서 오는 28일까지 실시된다.

제17대 군종감 취임
백영식법사(공군본부 군종과장)는 지난 1일자로 공군 군종처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백영식법사는 1950년 부산출생으로 68년 법사승가대회를 졸업하고 73년 승가대안도 철학과를 졸업한 이후 지난 78년 공군대위로 입관 군법사로 활약해왔다.

'명찰, 그곳에서' 강연
최완수씨(간송미술관 연구실장)는 2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청년회가 마련한 특강에 참여했다. 최씨는 '명찰,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야 하는가'란 주제로 강연했다.

일·중 불교교류회의 참가
권기종교수(동국대불교대학장)는 10월 22.23일 이틀간 일본 경도시 불교대학에서 열린 제5회 일·중 불교교류회의에 참가했다.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는 논문을 발표했다.

경도 기념대회 참석
김용운교수(한양대, 불교방송 시청자위원)는 경도기념대회 연구소와 일본의 이호재단이 공동주최하는 '재일교포 위치에 관한 심

포지'와 일본 경도 1천2백년 기념대회에 참석기 위해 지난 14일 출국했다.

고조선 강좌 열어
김종규씨(삼성출판사 회장)는 단국대 언론교수(사학과)를 초청, '한국고대사-민족의 뿌리 고조선' 강좌를 오는 12월 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삼성출판사출판관(02-679-4597)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기획·출판사 개업
최연세(한국재가불자연합회 사무처장)는 지난 14일, 출판인쇄회와 함께 '신재마'를 열고 그 개업식을 가졌다.
(02)263-0928-9

수미산 여행사 사장 취임
이성호씨가 최근(주)수미산 여행사 대표이사로 취임 지난 21일 여행사 사무실에서 취임식 및 창립 5주년 기념축하연을 가졌다.
(02)720-3241-7



◆ 농협불교회 회원들의 서원은 회사에서 가장 내밀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농협 불교회

농협활동도 빠를수 없는 농협불교회의 신명활동이다. 지난달에는 법장스님(수석사주지)을 증빙법사로 그동안 회원들이 오래 기다려 왔던 법당의 명화정안식을 봉행했다. 신명과 더불어 포교에도 힘쓰는 농협불교회는 회원들의 신앙당, 생활과 밀접한 법문, 쉬운 불교교리 그리고 예사실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달 회보 '불이문'을 제작 회원들에게 지난 2월 26일 창립일 농협 불교회의 창립 7개월만에 2백

부심으로 '신토불이' 지킨다
여 회원으로 늘어났다. 매일 마지막주 수요일 농협 중앙회내 12층 회의실을 이용 정기법회를 열어 불심을 키우는데, 회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장 포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 법사를 초청해 특별법회를 열기도 한다.
또한 성지순례도 실시해 유명 사찰을 찾아 콘스님의 법문을 듣고 신심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데 가족들도 함께 참여, 회기에대한 시간을 갖고 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나 볼 수 있게 해 포교에도 활약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의 가장 큰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현재 경남, 부산권의 농협불교회, 충청권의 농협불교회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전국 곳곳에 산재한 농협불교회를 하나로 조직해 전국 농협불자연합회를 만드는 것이다.
조완영회장은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지만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합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여 가장 모범이 되는 신명단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종근 기자)

동남아순회 포교
송산 스님(화계사 조실)은 중국 싱가포르 베트남 스리랑카 등 동남아 국가를 차례로 순방중에 있다. 스님은 순방을 마치고 오는 11월 7일 귀국 예정이다.

백양사 주지에 임명
지선스님은 지난 10일자로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 주지에 임명됐다. 스님은 64년 상현스님을 은사로 백양사에서 득도한 후 67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중정사서실장 관용사 주지등을 역임하고 전국불

개척회의 홍보실장 부임
해달스님(BBS 자비의 전화 진행자)이 지난 18일자로 조계종 개척회의의 홍보실장으로 부임했다.

방승경영인 세미나 참석
김태호시정(불교방송)은 한국방송협회 주관으로 열린 '94년도 방송경영인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재

내일을 여는 불자

불교정보연구소 이 정 소장



◆ 한국 불교정보 전산화에 이장표를 세운 이정 소장

"끊임없는 기술변화에 대한 추적과 신성한 아이디어로 불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산화해 방대한 자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교방송 조사자료부장 불교정보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정 부장은 자료를 수집, 전산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방송자료를 제공하는 물론 불교자료를 가공하고 불교정보 유통망을 구성해 불교정보를 영단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전문가이다.

미래정보사회에 불교가 손조롭게 적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관련정보개발에 헌신을 기울이고 있다는

불교정보 전산화의 기수...첨단포교 길 열어

이 부장은 자료관리에 적합한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전산화도입(불교 역사 인물) <불교계 인명록> <사찰> 데이터베이스 등을 완성, 포교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기도 했다.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나 바로 이것이 전산화에 관한 한 여타 종교보다도 불교가 가장 앞서 간다는 데 대한 이 부장의 자부심이자 21세기 불교 준비하는 포교의 뿌리이기도 한 것이다.
중국대 역경인, 해인사 대장경 연구소와 협력해 한글대장경 전산화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이 부장은 시대에 맞는 자료해석과 그에

다른 쉬운 자료이용의 방법을 찾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며 동시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정보전산화로써 불교정보전산화에 다스나마 이바지하고 싶다는 강한 신념을 내보이고 있다.
이정 부장은 중국대 불교대학과 정보산업대학원을 거쳐 대학원연구원 지 한국기독교연구원에서 10년간 연구원으로 재임했으며 <진리의 문> <사찰사전> <한글불교 인명사전> <컴퓨터 관련서적> 다수를 펴내기도 한, 불교계 및 인문학의 독보적 전문 일꾼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영우 기자)

"기쁨넘치는 세상 만들겠어요"

무료공부방·사랑의 빵보내기·장학회등 운영

서울 휘경동 소재 한국사회문화 연구소(소장 고해우·이하 사문연)의 오후는 늘상 어린 개구쟁이들로 시끌벅적하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국학원마다 시간별로 수업이 진행되는 때문이다. 연구소에서 열리는 수업은 굳이 학교과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글·생활영어뿐 아니라 예절·인성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사를 하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방법, 잊혀져간 우리의 놀이문화를 재현해 보는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공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6년째 무료로 운영되는 연구소의 수업은 아이들의 학습열기만큼이나 성과가 높다. 발표력이 높아 인근 국민학교의 학생회장은 모두가 연구소에서 공부하는 아이를 차지. 중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의 수석도 이들이 도맡아 한다. 때문에 연구소내에 마련된 40여석의 파석은 언제나 만원이다.
이렇듯 사문연은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회봉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무료어린이 공부방뿐 아니라 사랑나눔 율영회, 나누는 기쁨 장학회, 사랑의 빵보내기 운동이 모두 이곳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문연은 지난 88년 복지·문화·환경등의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해우 소장이 세웠다. 89년,마산 율영사에 잠시 머물렀던 고 소장은 율영사봉사를 추진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이들을 만났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과 외로움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고 또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사랑나눔 율영회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도 이다 보니 모임이 되더군요"
당시 19명의 젊은 불자들이 주축되어 사랑나눔 율영회를 탄생시켰다. 회비와 바자회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무료탁노인과 환자 교도소 군면민 고이원등을 찾아 다니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했다. 율영회의 자비실천은 전국으로 퍼져

보살행이 숨쉬는 현장 사랑나눔 율영회

정기적으로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다. 사랑의 빵보내기 운동의 시작이다. 연구소내에 본부를 마련하고 간식과 생활용품,약품을 기탁 받았다. 연구소로 모인 성공과 들끓는 경우 대치원,진주 성암원,광릉 지리원,마산 관해사,부산 천마재 활안동 불교관련 복지시설단체에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있다.
또한 대치원 식구들의 고등학교 이후 생활기반을 마련해 주기위해 나누는 기쁨 장학회를 만들었다. 은문송기대학 영희 스님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장학회는 불우청소년 후원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에 주력, 청년학부파 장학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실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업은 '우리가 나누는 자비와 사랑... 그것은 따뜻한 세상만들기의 시작'이란 구호 아래 진행됩니다. 이는 내가 가진 것을 베풀어 보려는 나누어 사용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직업일 뿐입니다."
"모든 운동이 단지 기쁨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의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고해우 소장의 주장처럼 사문연은 보살행이 숨쉬는 실상이 되어 길하게 펴나가고 있다. 율영회 984-3865. (이준영 기자)

장수목
현대불교신문

주춧돌이 되어 주십시오

이 땅의 불국도에 개인 고승 대덕 큰스님과 불제자 여러분, 가족하고도 성스러운 불사에 동참하시기를 호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천大千 세계를 정엄히 정토로 보시하는 것보다 이웃에게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 전하는 공덕이 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포교와 전법의 해명을 부처님께서 주신 바,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제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불교텔레비전 방송은 간절한 원력을 뿌리 삼아 차연한 준비 과정을 거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3월 1일부터는 전국 방방곡곡에 정규방송을 하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속에서 발음이 솟구치고, 자진로 신심이 나지 않습니까? 불제자 여러분! 저같이말로 여러분의 신심과 기도를 모아 마음의 수미산, 보시의 바다를 이룰 때입니다. 더구나 이번 대적 불사를 함께 하시어 최소한 2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2천만 불제자라면 누구라도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불국도를 간방하는 불제자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영상포교의 길은 바로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전국 2천만 불제자 여러분, 불교텔레비전의 주춧돌이 돼 주십시오.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벽돌 한장씩 되어 주십시오. 티끌 하나도 사라짐이 없는 세상, 이와 같은 공덕과 인연이 어찌 생토로 이어지는 돌다리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마음 안에 극락의 마당을 하나 이루시고, 허사는 얼마든 부처님의 기도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자주식 청약안내

- 청 약 기 간 : 1994년 9월 10일 ~ 10월 31일
- 청약서 교부처 : 한국사회 문화연구소 불교텔레비전 본사
- 청 약 한 도 : 1인 10주(5만원) 이상 2만주(1억원) 이하
- 청 약 약 령 : ● 교부받은 청약서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 납입하신 후 교부받은 사본, 불교텔레비전 직원 전달해 주십시오. ● 아래 주소로 우송(동계우편)해 주십시오. 121-0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도동 418 불교텔레비전 경영관리국 전화 : (02)3270-3471~3479
- 청약금입금요령 : ● 모든 은행 우체국 등·수·국립의 지우물구에서 [계좌번호 : 7614677]으로 납입하시면 됩니다. ● 납입하신 때에는 상명 주소, 우편등번호,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십시오. ● 청약금은 사본이나 불국도에 불교텔레비전 본사에서 직접 변제; 입사하신 유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서울 마포구 대방동 418994-0500(국립) 761471
전화 3270-3300 팩스 3270-3496